

17세기 芝湖 李選의 『勝國新書』 고찰*

유 영 옥**

1. 머리말
2. 『승국신서』의 구성과 특징
3. 『승국신서』의 내용 분석
 - 1) 「麗末忠義錄」
 - 2) 「麗史列傳」
 - 3) 「不終錄」과 「故實卞誤」
4. 맺음말

<국문초록>

李選의 『勝國新書』는 여말 인물들의 정치적 행적을 節義 기준에서 포괄한 글이다. 상권의 「麗末忠義錄」 「不終錄」 「麗史列傳」은 列傳 형식이며, 하권의 「故實卞誤」까지 4편 전체에 按說이 史論처럼 달려 있어, 『승국신서』는 조선 후기 私撰史書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여말충의록」은 절의를 褒獎할 만한 52명의 종말을 약술했는데, 김진양의 절의를 정몽주 다음으로 높였고, 『고려사』 「姦臣열전」에 있던 조민수를 일약 충신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사열전」에는 고려 신하로서 조선 개국에 참여한 16명을 수록하여 혹평했는데, 여기서는 不義者의 경우 자신 또는 자손에게 끝내 재앙이 닥침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의도가 주목된다.

『승국신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직 節義뿐인데, 한 왕조에 출사했느냐 두 왕조를 섬겼느냐가 절의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에 저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연구교수(zoonzeng@hanmail.net)

자는 고려에 신하의 절개를 끝마치지 못한 24명을 「부종록」에 실어, ‘不終’한 그들의王氏를 위한 初心은 인정했지만 개국 이후 조선 조정에 관여한 행적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고실변오」는 9인의 守節 일화가 오류 내지 조작임을 분변한 글이다. 『승국신서』는 『고려사』와 실록에 철저히 근거했기에, 守節을 조목조목 부정하는 이 글은 나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승국신서』는 『고려사』에서 미흡했던 인물 평가 부분을 보완하는 데 유용한 문헌이다.

* 주요어: 芝湖 李選, 『勝國新書』, 私撰史書, 麗末鮮初, 節義

1. 머리말

芝湖 李選(1631~1692)은 西人 명문가 출신으로 송준길·송시열·이유태에게 수학하였고, 정치적 행보는 스승인 우암 송시열과 궤를 같이 하였다.¹⁾ 그는 건문이 넓고 박식하여 특히 國朝의 故事에 익숙하였고, 충절을 세운 先人들의 事蹟 읽기를 좋아하여 고사와 사적에 관한 글을 많이 지었다.²⁾ 『승국신서』³⁾도 바로 그러한 저술의 하나이다.

『승국신서』는 비록 기전체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여말선초 특정 인물들의 행적을 列傳 형식으로 약술하고, 또 저자의 견해를 그대로 표출한 按說을 종종 史論처럼 첨부하였기에, 조선후기 私撰史書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승국신서』는 『지호집』에 수록되지 않았고⁴⁾ 단독으로 활자화된 적도 없

1) 이선은 全州李氏 광평대군의 8세손으로 부친은 우의정 李厚源이며 모친은 沙溪 金長生의 손녀다. 현종 5년(1664) 문과 급제하여 이조참판, 예조참판, 대사성 등을 역임했으나, 숙종 15년(1689) 송시열이 사사될 때, 우암의 핵심 도당으로 지목되어 機張에 유배된 뒤, 숙종 18년(1692) 2월 그곳에서 병사하였다.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 이후 신원 復官되고, 철종 5년(1854) '正簡'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2) 김성애, 『지호집』〈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0.

3) 이선이 1690년에 지은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가 『승국신서』 안에 들어있기에, 『승국신서』는 1690~1692년(이선 卒)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만, 조선후기 일각에서는 영향력 있게 읽혔고,⁵⁾ 일제강점기의 필사본도 현존하고 있다.⁶⁾ 따라서 「승국신서」를 살펴보면, 여말 인물들의 정치적 향배에 관한 조선후기 사대부들의 인식 변화를 일정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호 이선의 『승국신서』는 아직까지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⁷⁾ 이에 본고는 『승국신서』의 구성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특징 및 사료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승국신서」의 구성과 특징

『勝國新書』는 ‘고려에 대한 새로운 글’이라는 뜻이지만, 그 내용은 고려사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여말선초 특정 인물들의 고려 멸망과 조선 개국에 관계된 행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승국신서』는 上·下 2권에 도합 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상권에는 「麗末忠義錄」⁸⁾ 「不終緣」 「麗史列傳」이 있고, 하권에는 「故實卞誤」만 별도로 존재한

4) 鄭澹가 1721년 무렵 찬술한 이선의 신도비명에는 “공의 저술로 自家祭儀, 喪葬儀, 大臣年表, 勝國新書, 文集 17권이 家藏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 詩文만을 13권 6책으로 정리하여 1856년 전후에 『지호집』 초간본이 간인되었다. 『승국신서』는 초간본 『지호집』에는 수록되지 못하고, 1983년에 중간된 『지호집』에 비로소 첨가되었는데, 여기에도 『승국신서』의 일부만 수록되었다.

5) 이는 黃胤錫의 『頤齋亂藁』, 成海應의 『研經齋全集』 권58 「蘭室史料1」 〈故實考異〉, 朴性陽의 『芸窓集』 권13 〈星山伯喪公(克康)神道碑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조선사편수회 소장寫本을 謄寫한 필사본 『승국신서』(1929)가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필사본 『승국신서』가 있다. 두 필사본은 똑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글자 出入이 극히 드물다. 다만 규장각본은 『승국신서』 全(上·中) 1책으로 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승국신서』 上·下 合本 1책으로 되어 있다. 본고는 편의상 글자가 더 선명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7) 『승국신서』를 전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본고가 처음이며, 『승국신서』를 조금이라도 언급한 논문조차 찾기 어렵다. 저자 李選에 대한 연구 역시 보이지 않는다.

8) 1983년 중간된 『지호집』에는 『승국신서』 중 「王氏忠義錄」만 있고 「부종록」 「여사열전」 「고실변오」는 없다. 「왕씨충의록」은 곧 「여말충의록」인데, 약간 글자의 出入이 있다. 2015년에는 광평대군파 호운공 종중에서 『한글 지호집』 1~4를 발간했는데, 이는 중간본 『지호집』을 바탕으로 했기에 「왕씨충의록」만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따라서 차후에는 『승국신서』 나머지 3편의 글도 『지호집』에 모두 수록되고 또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권의 3편은 모두 紀傳體 史書의 列傳 형식을 갖추고 있고, 각 편에는 長短의 按說들을 첨부하였다. 그러므로 『승국신서』가 비록 기전체 사서로서의 형식 요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17세기 私撰史書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상권의 「麗末忠義錄」은 최영·정몽주·길재 등 저자가 여말 절의자로 높이 평가하는 인물 수십 명의 종말을 약술하였다. 이들은 제1부류부터 제10부류까지 모두 10개 부류로 구분된다. 「不終緣」은 이색부터 이행까지 고려에 끝까지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크든 작든 조선과 연계된 24명의 개국 이후 행적을 주로 서술하였다. ‘不終’은 신하의 절개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뜻이다.⁹⁾ 「여사열전」은 조준·정도전·윤소종 등 고려에 출사했으면서도 조선 개국에 적극 동참하여 저자가 不義의 변절자로 혹평하는 인물 총 16명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여말충의록」 「부종록」 「여사열전」에는 형식, 내용, 배열 순서, 근거 사료 등의 측면에서 네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기전체 사서의 열전에 해당하는 형식을 갖추되, 개인의 출생부터 가문의 연원이나 일생의 이력을 모두 기술한 것이 아니라 고려 멸망과 조선 개국 전후의 행적만 서술했다는 점이다.

둘째, 3편은 ‘節義’를 기준으로 褒 또는 貶되는 인물들을 수록하되, 그 순서는 저자가 褒章하는 인물에서부터 매우 貶削하는 인물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여말충의록」은 ‘忠臣열전’에 해당하고, 「여사열전」은 저자가 賣國하고 弑君한 인물들로 치부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말하자면 ‘叛臣열전’에 가깝다.

여말 사대부들의 心志는 두 가지다. 하나는 왕씨를 扶護하다가 유배되거나 살해되었으니, 이색·조민수·우현보·우인렬·변안렬 및 김진양·이래·권흥 등의 여러 諫官들이다. 다른 하나는 禍를 세우고 昌을 세운 일로 여러 公들에게 죄를 돌려 극도로 무함하고는 끝내 우리 조정의 개국공신이 된 경우이니, 조준·정도전·남은·남재·조박·오사충 무리다.¹⁰⁾

9) 「부종록」의 제목 아래에 “謂以王氏之臣 又事本朝 臣節不終也”라 주석하였다.

10)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金子粹〉 愚按: 麗末士大夫心志有二端. 一則以扶護王氏 或被流竄 或至殺死, 卽李穡曹敏修禹玄寶禹仁烈邊安烈 及金震陽李來權弘等諸諫官也. 一則以立禍立昌 歸罪諸公 極意羅織 而終爲我朝開國功臣者, 卽趙浚鄭道傳南閔南在趙瑋吳思忠輩也.

「부종록」은 「여말충의록」과 「여사열전」 사이에 있어, 저자가 절의와 변절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는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저자는 「부종록」 속 인물들의 王氏를 위한 마음은 인정했지만, 개국 이후 그들이 조선 조정에 관여한 행적은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3편 중 16명이 실린 「여사열전」은 그 분량이 「여말충의록」과 「부종록」을 합친 것만큼 많고, 수십 명이 실린 「여말충의록」의 분량은 24명이 수록된 「부종록」과 맞먹는다.¹¹⁾ 『승국신서』 상권이 이렇게 구성된 까닭은 아마도 저자가 고려 신하였으면서 조선 개국에 동참한 이들의 행적을 철저히 밝혀 폄삭을 가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승국신서』에는 史論에 해당하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 ‘按, 愚按, 余按, 辨曰’ 등의 명칭으로 달려 있다. 이를 ‘按說’로 통칭하여 말해보면,¹²⁾ 「여말충의록」에는 10개의 인물 부류에 거의 한 건씩 안설이 붙어 총 8건이 있다. 이는 거의 한 부류의 인물 소개가 끝나면 하나의 안설을 붙인 셈이므로, 안설이 곧 각각의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종록」에는 이색에 1건과 「부종록」을 총괄하는 안설 1건이 있어 총 2건, 「여사열전」에는 개별 인물에 대한 안설은 없고 이 편을 총괄하는 안설 1건만 있다. 상권의 여러 안설들을 살펴보면, 각 편의 인물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넷째, 『승국신서』 상권에는 자주 “『고려사』에 傳이 있다[麗史有傳]”는 주석이 달려 있고, 때로는 “『고려사』에 보인다[見麗史]”거나 “國乘에 보인다[見國乘]”는 주석도 있다. 이는 저자가 『승국신서』를 지으면서 『고려사』와 조선 왕조실록에 주로 근거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권의 3편에는 두 正史에 없는 색다른 내용을 찾기 어렵다. 다만 실록의 여러 곳에 흩어진 기록들을 저자가 인물별로 알뜰히 수합했다는 측면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없지 않다.

11) 국립중앙도서관의 필사본 『승국신서』는 四周雙邊의 半郭(17×23cm)에 10행이 들어 있다. 半郭을 1쪽으로 보면, 「여말충의록」은 1~24쪽, 「부종록」은 25~41.5쪽, 「여사열전」은 41.5~85쪽이다. 하권의 「고실변오」는 87~131쪽이다.

12) 간혹은 ‘按, 愚按, 余按, 辨曰’ 등의 단어 없이 바로 按說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본고는 임의로 괄호를 넣어 ‘(按說)’로 표기하였다.

저자가 이처럼 『고려사』와 실록에 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젊어서부터 역사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고, 또 그가 曝史의 일로 누차 史庫에서 祕藏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 그리하여 이선은 누가 國朝故事를 물으면 메아리치듯이 신속히 답변하여 마치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國子監 같다는 평가를 들었다.¹⁴⁾

저자가 『고려사』와 실록에 입각하여 『승국신서』를 저술했음은 하권의 「故實卞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승국신서』 하권의 「고실변오」는 옛 사실의 오류를 분변한다는 뜻으로, 고려말 이색·김주·김자수 포함 총 9명의 守節 일화를 소개하고, 저자가 두 正史 및 『여지승람』 등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한 끝에, 항간에 유행하는 이들의 守節 이야기는 근거 없는 오류이거나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¹⁵⁾ 결론 내린 辨證의 글이다.

근래 洪樂純이 “지호 이선 공은 평소 정밀하고 박식하다고 일컬어지고, 또 누차 사서를 포쇄하면서 祕藏을 放出함이 매우 많아 『승국신서』 1권을 저술했는데, 그 안에는 세상에 流傳되어 견고하게 굳어 깨뜨릴 수 없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컨대 고려말 金龍巖 [김주]이 江에 이르러 옷을 부쳤다는 등의 일과 金桑村 [김자수]의 死節이 모두 낭설이라 하였고, 또 예컨대 〈車元類雪冤記〉 역시 위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¹⁶⁾

북송의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편찬하면서 역사적 사실의 고증을 위해 별도로 『資治通鑑考異』를 저술했었고, 18세기 안정복은 『동사강목』 속에 부록으로 考異·怪說辨證·雜說·地理考·疆域沿革考正·分野考를 두어 고증을 명확

13) 『지호집』 권7, 「墓誌」〈芝湖居士自誌〉: 其在史局 連往江都太白 窺觀石室祕藏.

14) 『숙종실록』 권24, 18년 2월 辛巳(1일), 이선 졸기: 選自少日 服習文史 聞見博洽, 最熟於國朝故實 人有叩之 應答如響, 有人贈詩曰 “一部國子監 胸中森典憲.” 世以爲知言云.

15)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李穡〉: 而所取信者 特不過其遙遙雲仍臆斷無據之說耳. 嗚呼! 此何足爲千載之定論乎. 〈孟希道〉: 人之欲闡揚先德 固是常情, 而或不免誣先之歸 則害義大矣. 〈金子粹〉: 乃爲表章其先之事 而未免失實之歸, 殊可恨也. 〈元天錫〉: 此卽所謂齊東野人之語也. 不然 必其子孫成之也.

16) 黃胤錫, 『頤齋亂藁』 권13, 1769년 9월 丙午(27일): 頃日 洪伯能言 “芝湖李公選 素稱精博, 又累以曝史放出祕藏甚多, 著勝國新書一卷, 其中與世上流傳率不可破者 不同 亦非一二. 如麗末金龍巖臨江寄衣等事 及金桑村死節 謂皆浪說, 又如車元類雪冤記 亦謂其贗作矣.”

히 하고자 했다.¹⁷⁾ 『승국신서』의 「고실변오」도 그와 같이 史書 안에 포함 가능한 고증의 영역에 해당하는 글이다. 다만 「고실변오」는 다른 분야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고 오로지 ‘節義’에 대한 고증만 꼼꼼히 따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하권의 「고실변오」 역시 상권의 「여말충의록」 「부종록」 「여사열전」과 글의 취지가 동일하다고 하겠다.

저자 이선은 名賢의 사적을 좋아하여 여러 인물의 行狀이나 傳을 짓되,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여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자 애썼다. 저자는 자기 집안과 관련된 인물들의 行狀, 傳, 事實, 墓誌 등도 많이 지었지만, 그와 私的인 연관이 없는 인물들에 대한 글도 “내가 분수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謙辭를 자주 써가면서 자발적으로 많이 저술하였다.¹⁸⁾ 특히 행장 중 몇 편은 그 후손들을 찾아가 직접 자료를 얻어 저술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료 수집과 사실 고증에 집중하는 저자의 이러한 성향은 「고실변오」에도 당연히 투영되었다. 「고실변오」는 守節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먼저 轉載하고 그 뒤 按說에서 오류를 논변하는 형태로 서술되었는데, 상권의 3편과 달리 「고실변오」에 轉載된 자료 가운데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도 더러 있다. 또한 『고려사』와 실록 및 여타 자료에 입각하여 9명의 守節을 조목조목 부정하는 안설 자체도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어서 후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근거 문헌이 될 만하다. 따라서 「고실변오」는 『승국신서』에서 사료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태조 5년 최영에게 시호를 내리고, 태종 원년 정몽주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며 문종 즉위년 시호를 하사하였다.¹⁹⁾ 세종조에는 여말 절의자들을 칭송하면서 그 후손들을 녹훈하고자 노력하였다.²⁰⁾ 조선전기는 이러한

17) 姜世求, 『東史綱目研究』, 民族文化社, 1994, 69·151·153쪽 참조.

18) 보통 남의 행장이나 비문 등은 후손의 부탁을 받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선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료를 모아 찬술한 경우가 무척 많다. 예컨대 〈林將軍傳〉(임경업), 〈彝齋白公事實〉(백이정), 〈恥菴朴公事實〉(박충좌), 〈節齋金公事實〉(김종서) 및 『지호집』 권 10~12에 수록된 〈左議政柳公行狀〉, 〈右贊成柳公行狀〉, 〈思菴朴公行狀〉, 〈藥圃李公行狀〉, 〈龜峯先生宋公行狀〉, 〈簡易堂崔公行狀〉, 〈錦南君鄭公行狀〉, 〈知止堂宋公行狀〉, 〈企村宋公行狀〉 〈鶴林君崔公行狀〉 등이 모두 그러하다.

19) 『태조실록』 권10, 5년 10월 壬寅(18일); 『태종실록』 권2, 원년 11월 辛卯(7일); 『문종실록』 권5, 즉위년 12월 癸酉(3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말 절의자들의 충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갔다.

성리학의 정통론과 의리명분론에 입각한 절의 추숭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조선에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 조선후기에는 廢假立眞으로 상징되는 개국의 정당성 여부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만큼 조선의 歷年이 오래 되었기에, 멸망과 개국 사이에서 부침한 인물들의 평가가 더더욱 객관적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²¹⁾ 『승국신서』는 17세기 조선의 이러한 시대성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개국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저자 이선의 논리가 흥미롭다. 이선은 태조가 이미 天命을 받았고 勳業이 세상을 덮을 만큼 위대하여, 역성혁명 당시 그를 도울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했을 것이니, 굳이 고려의 신하였던 조준·정도전 등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는 논리를 동원하여,²²⁾ 저들이 왕씨의 녹을 먹으면서도 왕씨를 등진 사실에 매우 분개하였다. 이는 개국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국에 동참한 고려 신하를 폄삭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논리라고 여겨진다.

이선은 본디 성품이 강직하고 명분과 절의를 유념하였다.²³⁾ 그는 일찍이 제갈량·악비·문천상 등 충의를 다한 이들을 너무도 좋아하여, 노산군의 祠宇를 세우자고 청하는²⁴⁾ 동시에 사육신과 김종서·항보인을 신원하고자 했으며,²⁵⁾ 〈節齋金公事實〉(김종서)과 〈林將軍傳〉(임경업) 등 충의를 실천한 자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고,²⁶⁾ 고려말 김진양·이종학 등의 表章도 요청하였다.²⁷⁾

20) 俞英玉, 『東國通鑑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4, 159쪽 참조.

21) 유영옥, 「『廢假立眞』에 대한 조선후기 사대부의 비판적 인식」,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170쪽 참조.

22) 『승국신서』 상, 「麗史列傳」 按: 聖祖在麗季 勳業蓋世 天命已屬, 雲從龍 風從虎 草萊之間出, 而佐興運者 亦豈無其人乎. 而彼浚道傳等 (후략).

23) 『숙종실록』 권24, 18년 2월 辛巳(1일), 이선 졸기: 性剛方諒直 以名節自飭, 閱歷風霜 志氣彌厲.; 이선의 졸기를 보면, 당론에는 엄격하여 반대편으로부터 심한 질시를 받기도 했지만, 강직했기에 명분과 절의에 있어서는 투철한 면모를 보인 듯하다.

24) 『지호집』 권7, 「墓誌」 〈芝湖居士自誌〉: 癸丑二月 請立魯山祠宇 修祀典 置守塚及祭田, 皆蒙俞允.

25) 이는 『지호집』 권7 「墓誌」 〈芝湖居士自誌〉에도 나온다.

26) 『지호집』 권5, 「雜著」 〈節齋金公事實〉; 권13, 「傳」 〈林將軍傳〉.

나는 젊어서 前代 忠義의 사적을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제갈공명이 義를 내세워 적을 토벌한 일, 岳飛가 국치를 씻겠다고 맹세한 일, 두 승상 文天祥·陸秀夫와 方孝孺 선생이 살신 순국한 일들을 상상하며 흠모하였다.²⁸⁾

항상 “절의를 表章하고 숨은 것을 드러냄은 백성의 뉘엿한 양심을 바로잡고 世教를 부지하는 데 크게 관계된다”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전후로 조정에 요청하셨는데, 예컨대 성삼문 등 사육신과 김종서·황보인 두 재상을 罪籍에서 삭제하고, (중략) 고려조의 김진양·이종학 등 8인에게 정문을 세워 충성을 旌表하도록 하셨다.²⁹⁾

심지어는 명나라 학자로서 청과 싸우다가 순절한 黃道周에게 감명 받아 스승 우암에게 그 문집의 발문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³⁰⁾ 이로 보면 『승국신서』의 내용이 온통 節義에만 집중된 것은 이와 같은 저자 개인의 투철한 절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정도전이 『고려국사』를 수찬한 이후, 여말 史實에 대한 筆削의 자의성과 여말 인물에 대한 평가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태종대와 세종조 수차례 개찬을 거듭한 뒤 문종조에 비로소 『고려사』가 완성되었다.³¹⁾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통론과 의리명분론이 강화됨으로써 『고려사』는 특히 인물 평가 측면에서 종종 비판되었다. 『승국신서』는 그 무엇보다 절의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여 「고실변오」 속 인물들의 守節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혹자에게는 『고려사』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헌으로 여겨졌다.

27) 이 내용도 『지호집』 권7 「墓誌」 〈芝湖居士自誌〉에 나온다.

28) 『지호집』 권7, 「雜著」 〈市兒〉: 余少也 酷好前代忠義之蹟, 而尤於諸葛孔明之仗義討賊 岳武穆之誓雪國恥, 暨文陸兩承相遜志方先生之殺身殉國 想像欽慕.

29) 『한글 지호집』 권4, 「부록」 〈嘉義大夫吏曹參判 (중략) 芝湖李公行狀(族孫 奉朝賀 紀淵 撰)〉: 常謂 “表章節義 闡發幽隱 大有關於正民彝扶世教.” 由是 前後建請, 如成三問等六臣及金宗瑞 皇甫仁兩相之除罪籍, (중략) 麗朝金震陽李鍾學八人之旌忠.

30) 『지호집』 권4, 「書」 〈上尤齋先生[癸丑九月]〉.

31)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2, 19~44쪽; 李右成·姜萬吉 편, 『韓國의 歷史認識』 下, 創作과批評社, 1976, 215~219쪽 참조.

또 그의 증조부 지호공(故 참의 選)이 지은 『승국신서』 1책을 꺼냈다. 대개 예컨대 고려의 김주·김자수·이양중·원천석·조견 등 세상에서 고려 왕실을 위해 守節했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에 대해 모두 그 오류를 분명한 것이다. 또 예컨대 고려말에 死節한 최영·김종연 등 여러 공들에게는 모두 表章하였고, 그 본조에 들어와 옛 군주에게 두 마음을 가진 조준(중략) 여러 사람에게는 모두 貶鉞을 가하였다. (중략) 대저 이 책은 고려사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니, 후일 고려사를 짓는 자는 반드시 이 책을 취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점이 있다.³²⁾

본조의 지호 이선이 편찬한 『승국신서』도 무민공[최영] 및 경렬공 정지와 원수 김종연을 일체 發揮하여 정인지의 曲筆에 어둡게 가려 있지 않도록 하였으니, 또한 海東의 백 세를 눈뜨게 해주는 開眼處다.³³⁾

이와 같이 17세기 『승국신서』는 조선초기 『고려사』에서 미흡했던 인물 평가를 보완해줄 수 있고, 특히 「고실변오」는 당대 세간에서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내용들을 충격적으로 뒤집기도 한다. 따라서 『승국신서』는 여말선초 정치사 및 인물사 연구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3. 『승국신서』의 내용 분석

1) 「麗末忠義錄」

「여말충의록」은 위화도 회군과 우·창왕 폐위 및 조선 건국 과정에서 화를 당한 인물들의 종말을 약술한 내용으로, 시종 최영부터 은거한 길재까지 총 52명의 말년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수록된 인물들은 사건별로 나누거나 또는 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총 10부류로 분류된다.

32) 黃胤錫, 『頤齋亂藁』 권15, 1770년 6월 庚子(26일): 又出其曾祖芝湖公【故參議選】所纂勝國新書一冊. 盖如高麗之金澍金子粹李養中元天錫趙狷 世謂之爲麗室守節者 皆辨其謬. 又如麗末死節人崔瑩金宗衍諸公 皆爲之表章, 而其入本朝貳心舊君者 趙浚 (중략) 諸人 並加貶鉞. (중략) 大抵此書 當補麗史之缺, 異日修麗史者 必有取此而正誤者矣.

33) 黃胤錫, 『頤齋亂藁』 권26, 1778년 9월 乙未(9일): 本朝李芝湖選勝國新書 亦以武愍及鄭景烈地金元帥宗衍 一體發揮 使不爲鄭麟趾曲筆所晦, 亦海東百世開眼處也.

제1부류는 최영과 그 심복들, 제2부류는 우왕의 복위를 도모한 김저 사건 연루자들, 제3부류는 윤이·이초 옥사 연루자들, 제4부류는 정몽주 및 그 무리로 몰려 화를 당한 자들, 제5부류는 공양왕의 양위 때 참형을 당한 공양왕의 두 사위 우성범과 강희계다.³⁴⁾

제1~제5부류는 「여말충의록」의 핵심으로, 비교적 시간 순서로 나열되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인물들은 모두 화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제4부류는 「여말충의록」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안에서 내용을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4부류의 처음은 “시중 정몽주는 임신년(공양왕 4년, 1392) 4월 김진양 등을 시켜 먼저 조준·정도전·남은·윤소종·남재·조박 등을 탄핵하게 하고, 장차 태조를 해치려고 도모하다가 선죽교에서 조영규 등에게 살해되었다.”로 시작하여, 이후 포은의 무리로 몰려 죽은 이들을 나열하였다. 둘째, 『고려사』 「열전」과 國乘을 참고하여, 1392년 4월 정몽주가 김진양 등을 시켜 이성계 무리를 탄핵한 내용, 그 결과 이성계 측 사람들이 귀양간 이야기, 상황이 반전되어 유배된 이들이 복귀하여, 도리어 정몽주와 탄핵한 자들이 피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셋째, 判繕工事 趙裕의 죽음을 기록했는데, 조유를 제4부류에 넣은 것은 잘못된 서술이라 여겨진다. 왜냐면 조유는 윤이·이초 옥사에 연루된 김종연과 함께 이성계를 해치고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아 1390년 11월 교살되었기에 제3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4부류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³⁵⁾ 첫째 부분은 열전의 형식을 취하였고, 둘째 부분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차례로 설명만 하였기에, 제4부류에 수록된 인물은 첫째 부분인 정몽주와 그 무리로 피화된 자들 도합 9인으로만 상정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까지를 전부 제4부류로 보는 이

34) 우성범은 우현보의 손자요 우홍수의 아들이며, 강희계는 강희백의 아우로 공양왕이 아끼는 두 사위였다.

35) 제4부류에서 탄핵에 참여하거나 이에 연루된 사람은 정몽주와 아우 정과, 김진양, 이확, 이래, 이감, 권흥, 정희, 김무, 서견, 이작, 이신, 유기, 강희백, 우현보와 네 아들 우홍수·우홍명·우홍득·우홍부, 이승인, 조호, 이색 및 아들 이종학과 이종선, 최을의, 정도·정우·이당, 유기, 이첨·이상영이다. 이 가운데는 후일 조선 조정에 연계되어 『승국신서』 「부종록」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유는 조유의 죽음을 기록한 바로 뒤에 정몽주와 김진양의 절의를 칭송하는 안설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문충[정몽주]의 큰 절의는 곧 일월과 빛을 다투니 진실로 논할 것도 없다. 김초려[김진양]가 세운 바는 그 다음이다. 조준·정도전 등을 탄핵한 글을 읽으면 지금도 늙름하게 생기가 있어 정말로 숭상할 만하다. 그 나머지 여러 공들도 왕실에 마음을 두지 않음이 없어 끝내 살해된 뒤에야 그쳤으니, 충의의 신하라고 일컫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⁶⁾

제1~제5부류에서 안설은 제1·제4·제5부류에만 붙어 있다. 제1부류의 안설은 “최영은 고려말에 충을 다한 大臣이며, 여러 공들은 모두 그의 심복으로 화를 당했으니 모두 忠義의 신하 아님이 없다.”³⁷⁾ 하였고, 제5부류의 안설은 “두 공이 혁명 무렵에 피화된 것은 비록 형세가 그러했지만,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³⁸⁾고 칭송하였다. 또 제4부류의 안설은 정몽주의 절의를 ‘일월과 빛을 다투다’고 표현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최영의 충절을 인정하고 정몽주의 절의를 제일 高評하는 것은 조선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해당하므로 별로 특이할 것이 없다. 오히려 제1~제5부류의 안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저자가 김진양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정몽주가 김진양 등을 시켜 조준·정도전 등을 탄핵한 사건을 매우 중시하여, 그 일을 상술하느라 제4부류에 「여말충의록」 분량의 절반을 할애했으며, 탄핵 상소의 선두에 섰던 김진양의 절의를 정몽주 다음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저자가 김진양과 그 탄핵을 이처럼 높이고 중시하는 까닭은, 아마도 그가

36)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4부류 按: 鄭文忠大節 直與日月爭光 固無論已. 金草屋所樹抑其次也. 讀趙鄭等彈章 至今凜凜有生氣 誠可尙也. 其餘諸公 莫不乃心王室 終至殺身而後已 可不謂忠義之臣哉.

37)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1부류 按: 崔侍中 乃麗季忠藎大臣, 而諸公皆以腹心被禍 則亦莫非忠義之臣也.

38)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5부류 按: 兩公之被禍於革除之際 雖其勢然也, 然使兩公早有貪生之心忘義以圖保 則亦可以免矣. 嗚呼! 兩公之不得令其終也 亦豈偶然哉.

「여사열전」에서 변절자로 혹평한 자들을 김진양의 탄핵 상소가 참으로 통쾌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일 것이며, 아울러 이 탄핵 상소가 바로 고려 멸망의 최후 분수령이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⁹⁾

「여말충의록」 제6부류는 장수와 재상으로서 유배되거나 스스로 떠돌다가 고려 멸망 이전에 죽은 조민수·정지·왕안덕·이림·지용기⁴⁰⁾이며, 제7부류는 고려 멸망 후 은거한 서견·길재다.

제6부류의 5인은 시기로 따지면 제1~제5부류보다 앞인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해당 사건에서 죽지 않고 유배되거나 자발적으로 떠났기에 여섯 번째에 배열된 것으로 보인다. 제7부류의 서견과 길재는 산림에 은거하여 조선 개국 뒤까지 생존했기에 끝 순서에 둔 것 같다.

제8~제10부류는 부록에 해당한다. 제8부류의 조규·조림·안주는 우왕 14년(1388) 시중 최영과 친하다는 이유로 귀양 갔는데, 그 뒤 조정에 다시 선 자취가 없어⁴¹⁾ 여기에 기록하였다. 제9부류의 이을진·이경도·이귀생·원상은 모두 변안렬의 무리로 김저 사건 때 죄를 받았으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몰라 여기에 붙여두었다.⁴²⁾

제10부류의 심덕부 등 6인은 趙裕가 피화될 때 연루되어 죄를 받았는데, 심덕부는 조선 조정에 들어와 벼슬하였고, 나머지 5인은 역시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 저자는 이들이 충의를 다한 신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처벌을 받았기에 일단 「여말충의록」 제일 끝인 제10부류에 특별히 기록해둔

39)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金子粹〉 愚按: 임신년(1392) 4월 鄭文忠이 순절한 뒤에는 왕씨의 존망이 이미 판가름 났는데, 당시 朝臣으로서 무릇 문충과 同心으로 섬긴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유배되어 한 사람도免한 자가 없었다.

40) 왕안덕과 정지는 김저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이후 정지는 개성판윤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공양왕 3년 10월에 졸했고, 왕안덕은 외방에 마음대로 거주하도록 허락받아 공양왕 4년 4월에 졸했다. 이림은 우왕 謹妃의 아버지로 김저 옥사에 아들 이귀생과 연루되어 유배와 사면을 반복하다가 귀양지 충주에서 죽었고, 제7부류의 이귀생은 고성으로 귀양간 뒤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 지용기는 공양왕 때 9공신에 들었는데, 공양왕 3년 妻族인 王益富의 역모에 연루되어 공양왕 4년 4월 유배지에서 죽었다.

41)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8부류 按: 右三人 戊辰以崔侍中所親被罪, 而其後更無立朝之跡 故今姑錄此云.

42)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9부류 按: 右四人 皆以邊原州黨 與李琳王安德鄭地等 一時被罪, 而未知末終如何 姑附於王李諸公之下.

다고 하였다.⁴³⁾

이로 보면 제8부류는 제1부류 최영의 무리요, 제9부류는 제2부류 변안렬의 무리요, 제10부류는 제4부류에 잘못 수록된 趙裕와 관련된 자들인데, 모두 그 종말을 알지 못해 「여말충의록」의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0부류의 심덕부는 개국 후 조선에 출사했기에 충의를 다한 신하가 아니므로, 「여말충의록」에는 “侍中이요 菁川 忠義伯인데, 兔山에 유배되었다.”는 한 마디만 있고, 나머지 그의 이력은 모두 「부종록」에서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심덕부는 「부종록」에 포함되는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여말충의록」에 수록된 인물

	분류	인명	인원(52인)	비고
1	최영과 심복	崔瑩[麗史有傳], 宋光美, 安沼, 鄭承可, 印原寶	5인:죽음	按
2	김저 옥사 연루자	金佇, 鄭得厚, 趙方興, 邊安烈[麗史有傳]	4인:죽음	
3	윤이·이초 옥사 연루자	金宗衍과 同黨(權忠, 權格, 李芳春, 金可勿, 李天用, 鄭甫, 朴原實 등), 尹有隣, 崔公哲, 洪仁桂/ 제4부류에 잘못 수록된 趙裕	11인:죽음 1인: 죽음	
4	정몽주와 무리	鄭夢周[麗史有傳], 金震陽[麗史有傳], 李擴, 李鍾學, 李崇仁[麗史有傳], 崔乙義, 禹洪壽·禹洪命·禹洪得	9인:죽음	按
5	공양왕 양위 때 피화된 사위	禹成範, 姜淮季	2인:죽음	按
6	장수나 재상으로서 유배 또는 떠난 인물	曹敏修, 鄭地, 王安德, 李琳, 池湧奇[모두 '麗史有傳' 註 있음]	5인	按
7	은거	徐甄, 吉再	2인	按
8	최영과 친분	趙珪, 趙琳, 安柱	3인	按
9	변안렬 무리	李乙珍, 李庚道, 李貴生, 元庠	4인	按
10	趙裕에 연루	沈德符, 趙彦, 郭璇, 金兆府, 魏種, 張翼	6인	按

43)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10부류 按: 右六人 皆辭連趙裕被罪者, 而德符既入我朝 復居政府, 他人之事 亦未可知, 而既以被罪於其時 故姑錄於此, 非謂明是忠義之類也.

한편, 저자가 제6부류의 조민수를 「여말충의록」에 포함시킨 것은 자못 이례적이다. 『고려사』 「姦臣열전」에는 「여말충의록」 제3부류의 변안렬과 제6부류의 조민수·왕안덕이 들어 있다. 변안렬과 왕안덕은 우왕 복위를 도모한 김저 사건에 연루되어 피화되었으니, 비록 『고려사』에 ‘간신’으로 규정되었으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말충의록」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하지만 조민수를 최영·정몽주와 나란히 「여말충의록」에 넣기에는 애매한 점이 없지 않다. 권문세족으로 요동정벌 때 좌군도통사였던 조민수는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한 후 창왕을 옹립하여 權柄을 잡았다가 축출된 뒤 1390년 2월에 죽었는데, 조민수가 창왕을 옹립한 것은 개인적인 私心 때문이라는 인식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상존하고⁴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 이선은 고려가 멸망하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체면을 버린 채 조선 조정에 참여하고자 했음을 꼬집으면서,⁴⁵⁾ 제6부류의 5인은 어찌됐던 당대의 정치 역학 속에서 결국 조선 개국 이전에 죽었기에, 살아서도 고려의 신하요 죽어서도 고려의 귀신이니 부끄러움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당시의 신하들이 비록 그 初心은 왕씨에게 충성했지만, 종말을 보면 대부분 우리 조정에서 失身하여 아름다운 절개를 끝내 보존하지 못한 경우가 손가락으로 이루 다 꼽을 수 없다. 위의 다섯 공들은 모두 한 시대의 장수와 재상이면서, 떠돌거나 유배를 겪다가 王氏가 망하기 전에 죽었다. 살아서는 왕씨의 신하였고 죽어서는 왕씨의 귀신이 되었으니, 그 또한 다행이고 부끄러울 게 없다.⁴⁶⁾

44) 『高麗史』 권137, 「列傳」 제50 〈辛昌 總序〉: 太祖 欲擇立王氏後 曹敏修 念李仁任薦拔之恩 欲立昌 恐諸將違己 以李穡爲時名儒 欲籍其言 密問之.: 조선후기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등 여러 문헌에서 『고려사』와 유사한 서술이 반복되었다.

45)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7부류 按: 王氏廟社既屋之後 自元臣故老以下 無不抗顏屈膝 復立維新之朝, 而獨此二公 或屏處丘園 賦詩以思其君, 或克守臣節 抗章以明其志, 終蒙聖主 褒揚 至比於夷齊箕子之類, 其所以樹風聲立人紀者 可謂偉矣, 擬歟! 休哉!

46) 『승국신서』 상, 「麗末忠義錄」 제6부류 按: 當時之臣 雖其初心王室, 及觀末終 率多失身於我朝 不能終保令節 蓋指不可勝屈矣. 右五公 則皆以一代將相 備經流離竄謫 以終其身於王氏未亡之前, 生爲王氏臣 死作王氏鬼, 其亦幸矣 而無所愧矣.

16세기 윤근수⁴⁷⁾와 18세기 안정복⁴⁸⁾도 조민수를 간신열전에 넣는 것은 공정한 필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승국신서』의 저자 이선은 그를 간신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신들과 같은 반열로 일약 끌어 올렸다. 그렇다면 이선은 설령 개별 인물에 폐단이 없지 않더라도 고려의 신하가 고려에서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긴 반면,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고려에 출仕했다가 다시 조선에 入朝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失節로 여겼다고 하겠다. 여말 인물들에 대한 이선의 포폄에는 바로 한 왕조에만 출사했느냐 두 왕조를 섬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이다.

2) 「麗史列傳」

「여사열전」에는 조준, 정도전, 김사형, 남재, 남은, 배극렴, 조박, 오사충, 윤호, 조영규, 황희석, 류만수, 황거정, 손흥종, 윤소종, 정충, 도합 16명이 들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고려에 출사했다가 조선의 개국공신에 녹훈되었기에, 『고려사』뿐만 아니라 실록에도 그 행적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이 애초에 고려 신하였던 점을 강조하여 이 편의 제목을 ‘여사열전’으로 붙인 듯하다.

16명 중 일부는 『고려사』 「諸臣열전」에 입전되었지만, 저자는 이들을 賣國의 계책을 내고 옛 군주를 죽인 자들로 보았기에, 「여사열전」은 실상 ‘叛臣열전’에 가깝다. 이는 「여사열전」 맨 끝에 붙은 안설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저 조준·정도전 등은 왕씨의 世祿之臣으로 出身하여 주인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건만, 賣國의 계책을 내어 겉으로는 왕실을 부흥하는 체 하면서, 禍·昌을 주살하고 恭讓을 옹립하여 9공신 대열에 속하

47) 尹根壽, 『月汀集』 別集 권4, 「漫錄」 제48항: 『고려사』 간신전에 실린 조민수·변안렬에 있어서는 일과 행동에 시종일관 간사스런 증상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조민수는 단지 前王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는 李穡의 말만 듣고 창왕을 옹립했으며, 변안렬은 驪興王[우왕]을 개인적으로 배알했을 뿐이다. 이것으로 죄를 만들어 간신의 열에 두었으니, 어찌 후세의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으며, 또한 어찌 믿을 만한 直筆의 역사가 되겠는가?

48) 安鼎福, 『順菴集』 권10, 「東史問答」(上星湖先生書庚辰): 조민수와 변안렬을 다 奸臣傳에 넣은 것은 공정한 필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였고, 필경에는 또 그 군주를 폐위 축출하여 우리 조정의 개국 원훈이 되고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겨, 다시 옛 주인 父子를 교살하고 왕씨 자손을 전부 취하여 바다 속에 던졌으니, 어찌 그렇게 잔인한지! 저 조준 등은 하늘이 정한 몇몇한 도리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 좇아 단지 부귀만 길이 향유하고자, 賣國과 弑君을 마치 바둑이나 장기 두듯이 여겼으니, 일찍이 이롭지도 않았고 또한 삶을 제대로 마치지기도 못하였다.⁴⁹⁾

「여사열전」은 『승국신서』 총 4편의 글 가운데 유일하게 16명 개개인에게는 하나의 안설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여사열전」 말미에는 이 편을 총괄하는 안설을 꽤 길게 붙였는데, 거기서 저자는 이들이 왕씨를 섬긴 지 오래되었건만 오직 이익만 좇아 우·창왕 주살하고⁵⁰⁾ 공양왕 부자를 교살했으며 왕씨 자손들마저 전부 바다에 수장했으니 참으로 잔인하다고 쓰아 붙였다.

특히 조준과 정도전은 공양왕을 즉위시킨 9공신에 해당하면서도⁵¹⁾ 조선 건국을 주도하였기에, 저자가 펴막하는 「여사열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여사열전」에는 조준과 정도전이 제일 먼저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도전에 대한 서술이 제일 길고, 그 다음으로 윤소종·김사형·남은·조준에 대한 서술도 상당히 길다.

〈표 2〉 「여사열전」에 수록된 인물

	인명	『고려사』 「열전」	개국공신	비고
1	趙 浚	권31	1등	후손 조성 주살
2	鄭道傳	권32	1등	피화
3	金士衡	권17 〈金方慶〉 附	1등	후손 김자점 주살
4	南 在		1등	

49) 『승국신서』 상, 「麗史列傳」 按: 而彼浚道傳等 以王氏世祿之臣出身 事主積有年紀, 而生賣國之計 外假興復王室, 誅殺禍昌 擁立恭讓 參九功之列, 畢竟又復廢逐其君 爲我朝開國元勳 猶以爲不足, 又絞殺舊主父子 而盡取王氏子孫 投諸海中 抑何其忍歟. 彼浚等不恤天常 惟利是趨 但欲長享富貴, 視賣國弑君如奕碁 曾不料利 亦不終.

50) 저자 이선도 우·창왕을 '辛禡·辛昌' 또는 '禡·昌'으로 표현했지만, 『승국신서』를 짓는 데 있어 廢假立眞의 명분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1) 9공신은 이성계, 정몽주, 심덕부, 지용기, 설장수, 성석린, 박위, 조준, 정도전이다.

	인명	『고려사』 「열전」	개국공신	비고
5	南 閭	권29	1등	피화
6	裴克廉		1등	개국 후 곧 사망
7	趙 璞		1등	
8	吳思忠	권33	3등	
9	尹 虎		2등	개국 후 곧 사망
10	趙英珪		2등	수년 안에 사망
11	黃希碩		2등	수년 안에 사망
12	柳曼殊	권18 〈柳璈〉 附	원종공신	피화
13	黃居正		3등	유배 삭훈
14	孫興宗		3등	유배 삭훈
15	尹紹宗	권33	원종공신	개국 후 곧 사망
16	鄭 摠		1등	

그런데 16명 중 정도전·남은·류만수는 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여사열전」은 이들이 주살되고 削勳되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⁵²⁾ 반면, 개국 후 부귀를 누리다 천수를 다하고 죽은 조준·김사형은 그 말미에 후대 자손 중 득죄한 인물을 첨부하였다.

礪이라는 자가 문과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참판에 이르렀는데, 경신년 아들 挺時와 함께 모역하여 주멸되었다.

후손 자점은 (중략)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아들 식, 첩자 정, 손자 세창·세룡 등과 모역하여 복주되었다.⁵³⁾

이는 「여사열전」에서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다. 고려를 배반하고 섬기던 군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이들의 말년 또는 그 자손들이 절대로 평

52) 다만 〈정도전〉은 끝의 “斬之 削勳 禁錮子孫” 뒤에 “孫文炯登科 官至領中樞府事, 道傳所著有詩文集經濟文鑑等書 刊行於世” 구절이 덧붙여 있다.

53) 『승국신서』 상, 「麗史列傳」 〈趙浚〉: 而有礪者 冒登文科 官刑曹參判, 庚申 與子挺時謀逆誅滅. 〈金士衡〉: 後孫自點 (중략) 官至領議政, 與子鉞孽子鉞孫世昌世龍等 謀逆伏誅.

안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된 서술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도는 안설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①정도전·남은·류만수는 십 년도 못 돼 몸이 무겁게 복주되어 그 공훈을 보전하지 못했고, ②배극렴·윤호·윤소중은 잇달아 수개월이나 1년 뒤에 사망했으며, ③조영규·황희석 역시 모두 수년이 못 되어 죽었고, ④황거정·손흥종도 죄를 지어 먼 곳에 유배되고 훈적에서 삭제되었다. ⑤조준·김사형은 비록 부귀를 누리다 죽었지만, 조준의 자손은 미약하다가 그 후손 조성에 이르러 모역으로父子가 사형되었고, 김사형은 그 후손 김자점 3대가 모두 亂逆으로 주멸되었다. 天道가 밝고 밝으니, 어찌 인과응보의 이치가 없으랴!

아아! 포은 등 여러 공들은 그 나라를 위하는 충이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아 해와 별처럼 밝으니, 비록 禍가 참혹했지만 한때의 일일 뿐,千古에 빛나는데, 조준 등은 자신이 화를 입지 않으면 반드시 후손에게 재앙이 있고⁵⁴⁾ 또한 악취가 만년 토록 남으니, 후세의 신하된 자는 여기에서 가히 勸戒할 바를 알 수 있다.⁵⁵⁾

이처럼 저자는 「여사열전」 16명 중 12명⁵⁶⁾에 대해 악행은 하늘이 용서치 않아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天道의 권선징악 내지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들을 재단하였다. 그리고는 이들을 「여말충의록」의 정몽주 등과 대비하여, 절의자의 禍는 참혹하나 일시적일 뿐 그 절의는 천추에 빛나고, 不義한 자들은 비록 자신이 화를 입지는 않더라도 자손들이 끝내 亂臣賊子로 주살되니, 후세 신하들은 이를 보고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54) 『周易』 坤卦, 文言傳: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55) 『승국신서』 상, 「麗史列傳」 按: 道傳間曼殊 則不十年身伏重誅 不保其勳, 克廉虎紹宗 相繼喪亡 於數月或一年之後, 英珪希碩 亦皆不數年而身死, 居正興宗 又以罪流配荒裔 削其勳籍, 浚與士衡 雖以富貴終, 浚子孫衰微 至其後孫礪 以謀逆父子正刑, 士衡 其後孫自點祖子孫 皆亂逆誅滅. 天道昭昭 豈無報應之理乎! 噫! 國隱諸公 其爲國之忠 至死不變 炳與日星, 雖禍慘一時事 光千古, 而浚等 若非身禍 必有餘殃 亦遺臭萬年, 後之爲人臣者 於此可以知所勸戒矣.

56) 그 밖에 남재는 세종 원년에 죽었고(『세종실록』 권6, 원년 12월 14일), 조박은 태종 8년에 죽었고(『태종실록』 권16, 8년 12월 6일), 오사충은 태종 6년에 죽었고(『태종실록』 권11, 6년 2월 10일), 정충은 세종 5년 10월에 졸했다고 한다.

3) 「不終錄」과 「故實卞誤」

「부종록」에는 고려의 신하였으면서 조선도 섬겨 신하의 절개를 끝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수록했는데, 대부분 개국 이후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不終’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켰다. 여기에 실린 인물은 李穡을 필두로, 禹玄寶, 禹仁烈, 沈德符, 成石璘, 偁長壽, 朴葦, 權近, 李詹, 姜淮伯, 李來, 權弘, 李茂·李琳[뒷부분 缺], 李舒, 河崙, 李稷, 權仲和, 柳亮, 柳廷顯, 韓尙敬, 朴可興, 鄭熙啟, 李行까지 총 24명이다.⁵⁷⁾

여말 사대부로서 모두 우리 조정에 들어가 개국·정사·좌명공신에 다 수 참여하고 지위가 재상 반열에 이른 자들이다. 이밖에도 8~9인이 더 있지만, 德望과 淸操로 우리 조정의 名相이 많이 되었기에 다시 여기에 신지 않는다.⁵⁸⁾

안설을 보면, 「부종록」의 24명은 여말 사대부로서 조선에 들어와 공신이 되고 재상의 반열에 이른 자들이다. 그러한 사람이 이들 외에도 8~9인이 더 있지만, 8~9인 중에는 덕망과 맑은 지조가 있어 조선의 명재상이 된 자가 많기에 「부종록」에 넣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부종록」의 24명은 조선에서 덕망과 청조로 이름나지도 못했고 고려에 끝까지 절개를 지키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4명 중 이색과 권근에 대해서만 특별히 타인의 평가를 각각 첨부하였다. 이색의 행적 말미에는 세종과 서애 유성룡의 말을 수록하였고 24명 중 유일하게 안설도 두었다. 권근의 행적 말미에는 후자의 詩⁵⁹⁾를 덧붙이고서 그 시가 권근을 기롱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57) 이색, 우현보, 우인렬, 심덕부, 성석린, 설장수, 박위, 이첨, 강희백에게는 모두 ‘麗史有傳’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58) 『승국신서』 상, 「不終錄」 按: 麗末士夫 皆入我朝 參開國定社佐命功臣 而致位宰列者. 此外又有八九人 然多以德望淸操爲我朝名相 故不復載錄於此云.

59) 이 시는 『대동야승』,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등에 나온다. 『연려실기술』 「태조조고사 본말」 〈文衡〉 ‘권근’ 조에서는 원천석이 이 詩를 지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의 시에 “밝은 해 아래에서 양춘은 의리를 말했지만, 세간의 어느 시댄들 현인이 없겠는가?” 하였으니, 대개 그가 입으로는 성현을 말하지만 몸은 두 성씨를 섬긴 것을 기롱한 것이다.⁶⁰⁾

권근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조선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색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가혹하다.

저자는 「부종록」 〈이색〉에서 창왕을 옹립하고 우왕을 맞이하여 논핵된 일, 윤이·이초 옥사에 연루되어 자식들과 함께 유배간 일은 아주 짧게 적는 반면, 개국 이후의 행적은 자세히 기술하였다.⁶¹⁾ 신록사에 피서 가서 병으로 죽었으며, 졸한 뒤 조정에서 예우한 내용과 시호 및 賜祭文도 기록하였다. 또 아들 이종학이 살해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빈산에 들어가 곡한 일을 거론하며 그가禍를 입는 것을 이처럼 두려워했다고 하였으며, 무학대사와 주고받은 시를 언급하면서 그가 세상에 영합하고 부처에게 아부했다고 비난하였다. 끝으로 “이색 역시 절의를 다 바치지 못했다.”는 세종의 탄식을 적었고, “志節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고려사』 本傳의 말로 끝을 맺었다.⁶²⁾

이러한 서술은 이색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와 상당히 배치된다. 사실 조선 시대에 이색에 대해서는 고려에 대한 절의, 불교에 대한 태도, 理學에 대한 기여 등의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인식이 공존했는데,⁶³⁾ 저자 이선은 개국 이후 조정에 영합한 사실을 「부종록」에 차곡차곡 적시하여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60) 『승국신서』 상, 「不終錄」 〈權近〉: 人有詩曰 “白日陽村談義理 世間何代更無賢?” 蓋譏其口談聖賢 身事二姓也.

61) 『승국신서』 상, 「不終錄」 〈이색〉에는 이색이 오대산에 들어갔을 때 조정에서 부르자, 입조하여 韓山伯에 봉해지고 科田 120결·米豆 100斛·소금 5斛을 하사받은 일, 한 달 뒤 또 米豆 100곡과 酒肉을 하사받고 義成·德泉 등의 도제조에 임명되며 腰輿를 하사받은 일 등을 서술하였다.

62) 『승국신서』 상, 「不終錄」 〈李穡〉: 世宗嘗發歎曰 “前朝之系 忠臣義士 甚少, 有如李穡 亦不效節.” 麗史本傳 亦曰 “志節不固.” 【麗史有傳】.

63) 정재훈, 「이색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한국사상사학』 30, 한국사상사학회, 2008; 도현철, 「조선시대의 이색 인식과 연구 과제」, 『한국사연구』 159, 한국사연구회, 2012. 참조.

저자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애가 목은을 楊彪에 비견한 일, 영해 유생이 서애를 찾아와 목은의 外鄉인 영해에 서원을 건립하는 일을 물었으나 서애가 답을 사양한 일도 덧붙였다. 목은의 문장은 훌륭하지만 行身에는 淸濁이 있다고 본 서애의 시 2수⁶⁴⁾도 소개한 뒤, 안설을 두어 詩의 뜻은 극히 적절하지만 목은의 국초 행적은 서애가 다 알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였다.⁶⁵⁾

아울러 저자는 『승국신서』 하권의 「고실변오」에서 항간에 떠도는 이색의 守節 일화들을 죄다 반박하여, 과거 왕씨를 위했던 이색의 마음은 인정하지만⁶⁶⁾ 결코 고려에 끝까지 절의를 지켰다고 볼 수는 없음을 역설하였다.

「고실변오」에서 저자는 이색, 김주, 김자수, 조견, 안성, 맹희도, 남재, 원천석, 이양중, 도합 9명의 守節 여부에 대해 나름의 분변을 가했는데, 그 중 이색에 대한 내용이 「고실변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⁶⁷⁾ 저자가 이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케 한다.

「고실변오」 〈이색〉은 〈牧隱先生碑陰記〉,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 〈上尤齋先生論牧隱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⁶⁸⁾ 〈목은선생비음기〉는 이색을 옹호하고 변론하는 내용으로 저자의 스승인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글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우암에게 편지를 올려 비음기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우암은 제자의 질의에 놀라면서 자신의 글이 고증에 철저하지 못함을 시인하였다.⁶⁹⁾ 이선은 스승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바탕으로 숙종 16년(1690)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⁷⁰⁾를 지었는데, 그는 이 글과 우암에게 올린 편지 1통을 按說 대신으로 「고실변오」 〈이색〉에 수록하였다.

64) 이 詩는 『西厓集』 권2에 실려 있다.

65) 『승국신서』 상, 「不終錄」 〈李穡〉 按: 厓老於牧隱 其語意極有斟酌, 此詩似只從麗史而言, 其於國初事 猶有未盡知者也.

66)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李穡〉 ‘上尤齋先生論牧隱書’: 牧隱初心未嘗不爲王氏.

67) 「부종록」 〈이색〉과 「고실변오」 〈이색〉은 조선후기 사대부의 이색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유익한 사료다. 따라서 『승국신서』의 이색 절의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논고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며,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핵심만 서술하고자 한다.

68) 또 「고실변오」가 끝난 뒤, 부록으로 송시열이 이선에게 보낸 〈尤翁先生與芝湖書〉 5통을 수록하였는데, 편지 내용은 이색에 관한 일만 추려 실었다.

69) 宋時烈, 『宋子大全』 권71, 「書」 〈與李擇之〔丙辰六月八日〕〉: 愚自少聯袂於其後承家 見其家乘而耳熟其誦習之言, 而今二友之言 又如此, 故信筆鋪舒 略無斟酌矣.

70) 이 글은 『지호집』 초간본과 중간본에 모두 없다.

우암은 〈목은선생비음기〉⁷¹⁾에서, 목은이 失節하고 佞佛했다는 소리는 사실 왜곡이며, 또 목은을 본조의 官爵에 係屬시킨 것은 억지로 우리 조정의 사람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색의 失身이 사책과 행장에 전하여 엄폐하기 어려우니 〈비음기〉 내용은 자손들의 억측에 불과한데,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감히 스승의 글을 분변한다고 밝힌 뒤,⁷²⁾ 〈비음기〉의 내용이 오류이거나 과도한 칭송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비음기〉에서 이선이 가장 크게 비판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생을 억지로 이끌어 우리 조정 사람으로 삼은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선은 이것이 사실과 아주 다르다면, 그 증거로 한산백에 봉해지고 하사품을 사양하지 않은 일들을 거론한 뒤,⁷³⁾ 이처럼 조정에서는 그를 原任大臣처럼 대하였고 그렇기에 자손과 문인들도 그를 本朝 사람으로 보았다고 주장하였다.⁷⁴⁾

다른 하나는 이색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향간에는 이색이 驪江 근처의 燕灘에 빠져 자결했다[燕灘畢命]는 이야기가 퍼졌는데, 저자는 이것이 목은에 대한 소문 중 가장 근거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였다.⁷⁵⁾

그가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십중팔구 『태조실록』의 이색 줄기에 “병이 나서 신록사에서 사망했다.”⁷⁶⁾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승국신

71) 『宋子大全』 권171의 〈牧隱碑陰記〉가 곧 이 글인데, 이색의 절의를 옹호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72)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李穡〉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且終至聖祖開國之後 浸浸然失身之歸 凡其載於史傳 見於碑狀者 皆班班難掩 而今見此篇 (중략) 而所取信者 特不過其遙遙雲仍臆斷無據之說耳. (중략) 愚敢略辨陰記中所載者 而以前日所上先生書 并附於下. 蓋此事所係非細 終不可泯沒也. 庚午臘月 完山李選書.

73) 이선은 이 일들을 앞의 「부종록」〈이색〉에도 상세히 적어 두었다.

74)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李穡〉 ‘上尤齋先生論牧隱書’：오대산에 있을 때 한산백에 봉하여 그를 부르니, 또 사양하지 않고 이르렀습니다. (중략) 또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조정이 그를 한결같이 原任大臣처럼 대하였고, 자신이 처신한 바 또한 일찍이 명백하지 않았기에, 그 자식과 문인들이 비문과 행장에 그를 本朝人으로 처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으나 근거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단지 자손들의 입에만 의지하여, 문득 늙은 충절을 허여해 곤장 그를 圃隱의 반열에 둔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75)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李穡〉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그 최고로 근거 없는 것은 ‘燕灘畢命’의 설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이는 바로 牧老의 후손 이개가 지어낸 것이다.

서』를 지으면서 『고려사』와 실록에 철저히 의거하였는데, 이는 燕灘畢命을 이색에 대한 가장 근거 없는 소문으로 단언한 데서 더욱 잘 드러난다.

한편, 저자는 「고실변오」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고려에 守節했다고 아무리 운위되더라도 개국에 참여한 자취나 개국 이후의 출사가 실록에 나와 있다면, 저자는 그들의 수절 이야기를 왜곡이라고 가차 없이 선언하였다. 예컨대 남재, 김자수, 조견, 안성은 실록에 그 이력이 뚜렷하므로,⁷⁷⁾ 그들을 절의자로 추앙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오류라고 저자는 생각하였다.

〈표 3〉 「고실변오」에 수록된 인물

	인명	인용 자료 ⁷⁸⁾ 및 안설	비고
1	李 穡	송시열, 〈牧隱先生碑陰記〉 按說 해당: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 : 〈上尤齋先生論牧隱書〉	부종록
2	金 澍	윤근수, 〈籠巖先生傳〉 金時讓, 〈荷潭雜著〉 崔峴, 〈一善誌〉 金烏書院 원생과 鄭述의 문답 按說[愚按]	
3	金子粹	蔡裕後가 지은 비문 按說[愚按]	
4	趙 狷	평양조씨 족보 (按說)	
5	安 省	여지승람, 세종실록, 宣祖의 전교와 吏批의 답변	
6	孟希道	권근, 『양촌집』 〈贈孟先生詩卷序〉 按說[余按]	

76) 『태조실록』 권9, 5년 5월 癸亥(7일): 韓山伯 이색이 驪興에 있는 神勒寺에서 졸하였다. (중략) 병자년 5월에 神勒寺로 피서하기를 청하였는데, 갈 때에 병이 생겼다. 절에 가자 병이 더하니 (중략) 말을 마치자 돌아갔다.

77) 이들은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를 통해 각각 조선에서 다양한 관직에 임명되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재와 김자수는 『고려사』에도 자주 나온다. 안성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오지 않는다. 조견은 『고려사절요』에는 없고 『고려사』에 1번 이름만 나온다(『고려사』 권105, 「열전」 제18 〈趙仁規〉附 趙德裕).

	인명	인용 자료 ⁷⁸⁾ 및 안설	비고
7	南 在	의령남씨 족보 (按說)	여사열전
8	元天錫	앞부분 缺 ⇒ 자료 출처 불명확 (按說[辨曰])	
9	李養中	첫 글자 ‘文’ 이하 모두 缺 ⁷⁹⁾	

김자수⁸⁰⁾의 外裔인 蔡裕後가 지은 비문을 요약하면, 김자수는 충청도 관찰사 때 時政의 혼란을 보고 물러나 귀향했는데, 개국 후 태종이 형조판서로 부르니, “나라가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 신하의 義”라 하면서, 廣州 秋嶺에 이르러 “여기서 죽어 오직 신하의 절개를 다할 뿐”이라 하고는 자결했다고 한다.

이에 저자는 『고려사』에 근거하여 “정몽주 순절 후 그와 同心으로 섬긴 자들은 모두 유배되었는데, 그때 김자수는 우현보·강희백·류근 같은 사람들을 찬축하여 형조판서로 승진했으니, 김자수가 我朝에 歸心한 것은 진실로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 또 실록을 활용하여 “그 성명이 國乘에 드러난 것으로 말하자면, 태조 무인년 청주목사로서 기근이 들자 감사에게 진술한 일이 있고, 태종 신사년에는 좌산기상시가 되었으며, 신묘년 9월에는 判강릉부사에 出拜되었다가 졸하였다.”고 하면서, 채유후의 비문이 터무니없음을 언급하였다.⁸¹⁾

개국공신 조준의 동생 조견의 경우에는 평양조씨 족보에 “초명은 涓[혹은 胤]인데 고려가 망하자 ‘狷’으로 개명하였으니, 舊主를 연모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며, 또 나라가 망했는데도 죽지 않은 것이 개와 유사하다는 의미였다. 형

78) 按說에 인용된 자료들은 <표 3>에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다.

79) 이양중은 「고려사」에 2회 나오는데, 그 중 『고려사』 권137, 「열전」 제50, 창왕 원년 3월조에 “憲府에서 李仁任의 일당인 이양중·奎子忠이 역지로 양인을 천인으로 만들었다고 탄핵하여 삭직하고 유배 보냈다.”고 하였다. 조선초기 실록에도 몇 번 나오지만, 그가 개국 이후 출사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80) 『승국신서』 상, 「故實卞誤」〈金子粹〉愚按: 金子粹의 ‘子’자는 『고려사』에 근본한다. 國乘에는 ‘自’로 많이 되어 있고, 비문에도 ‘自’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81)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金自粹〉.

조준이 개국공신이었기에 조견에게 호조전서를 제수하니, ‘신은 松山의 고사리를 캐기를 원하지 聖人の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는, 끝내 林泉에서 늙었으니 그 守義가 돌이 아님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이에 대해 이선은 “말이 근거 없음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탄식하면서, 개국공신 책봉 때 태조가 “상장군 조견 등 7인 또한 각각 功이 있으니 尹虎의 例에 의거하여 녹훈한다.”고 말한 교시를 적시하고서, “그 평생의 本末이 國乘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엄폐할 수 없다.”고 일갈하였다.⁸²⁾

안성은 실록에 의하면 개국 후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선조 34년(1601) 2월 吏批⁸³⁾에게 안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전교하니, 이비가 “안성은 전조의 밀직제학이었는데 우리 조정에 不仕하여 國朝에서 그 절의를 높여 贊成에 추증하고 ‘思簡’의 시호를 내렸으며 자손을 녹용하여 대대로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저자는 『세종실록』에 수록된 안성의 졸기⁸⁴⁾를 언급하면서, “後生이 故事에 박식하지 못한 것은 별로 괴이하지 않으나, 군주의 물음에 근거 없는 설을 억지로 지어내어 대답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나”고 吏批를 꼬집었다.⁸⁵⁾

남재는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남씨 족보에 “성조 등극 후 숨어서 나오지 않자, 聖祖께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찾아[圖形物色], 그를 얻어서 정승에 재배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남재가 개국에 참여하였음을 언급하고, 圖形物色の 오류⁸⁶⁾를 지적하면서, 족보에 남재가 마치 前朝를 위해 守節한 듯이 기록된 것을 심히 가소롭게 여겼다.⁸⁷⁾

82)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趙浚〉.

83) 吏批: 吏曹에서 왕에게 주청하여 윤허를 받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관원.

84) 『세종실록』 권12, 3년 7월 丙子(16일), 안성 졸기.

85)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安省〉.

86) 「고실변오」 〈남재〉 속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소위 ‘도형물색’은 1차 왕자의 난으로 남은·정도전 등이 죽자 남재가 불안하여 도망가니 조정에서 그의 모습을 그려 찾았는데, 馬天牧이 남원으로 가다가 우연히 그를 만나 체포하여 유배 보냈다가 뒤에 방환하여 재상으로 삼은 일을 말한다. 그런데 의령남씨 족보에는 개국 후 그가 은거했기 때문에 도형으로 물색하여 정승을 삼았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87)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南在〉: 有若爲前朝守節者然 甚可笑也.

한편, 김주, 맹희도, 원천석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실록에서도 그 자취를 거의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향간에 알려진 이들의 守節 일화에는 혹평을 쏟아 붓지 않았지만, 근거할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守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김주는 공양왕 때 중국으로 사신 갔다가 귀국길에 압록강에서 고려 멸망 소식을 듣고, 부인에게 “충신은 不事二君하니 내 강을 건너도 몸을 용납할 곳이 없다.”고 편지를 보낸 뒤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일이 근거가 없음을 다각도로 분변하되, 고려말 봉명사신으로 明에 간 禮儀判書 金湊가 金澍와 이름의音が 같은 까닭에 와전되어 이런 일화가 생긴 듯 하지만, 세대가 멀어 징험할 문헌이 없으니 진실로 억측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였다.⁸⁸⁾

맹사성의 아버지 맹희도에 대해 후손들은 “왕씨를 위해 守節하고 우리나라에 서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자는 권근의 〈贈孟先生詩卷序〉⁸⁹⁾를 轉載하면서, “맹희도는 우리 조정에 들어와 吏役이 되었고, 직접 行宮에 이르러 獻詩도 하였으니, 그가 왕씨를 위해 수절함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였다.⁹⁰⁾

향간에서는 耘谷 원천석에 대해, 태종이 유년 시절 그의 문하에서 배웠기에, 등극 이후 그가 은거하던 原州의 赤岳으로 행차했더니, 운곡은 없고 늙은 여종 한 사람만 있어, 태종이 “운곡선생이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여종이 “벗을 찾으러 태백산에 가서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하였는데, 이 일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운곡의 高雅함이 嚴子陵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궁벽한 고을의 촌사람 말이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임금이 멀리 일개 小臣의 집으로 행차했다면 이는 실로 천 년의 성대한 거조이니, 당시의 史官이 반드시 사책에 기록했을 것인데, 저자 자신이 일찍이 사고에 보관된 책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이 일은 애당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세종께서 여말에 충신이 적었음을 탄식하면서 유독 길재의 不仕는 높이 칭송했으나 원천석은 한 번도 언

88)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金澍〉: 黃胤錫, 『願齋亂藁』 권15, 1770년 6월 庚子(26일).

89) 권근의 『양촌집』 권17에 〈贈孟先生詩卷序〉가 있고, 『동문선』에도 실려 있다.

90)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孟希道〉.

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세종께서 들으신 바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⁹¹⁾

『승국신서』를 통괄하는 주제는 節義뿐인데, 한 왕조에 출사했느냐 두 왕조를 섬겼느냐가 절의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不終한 자들의 王氏를 위한 初心은 인정했지만, 개국 이후 조선 조정에 관여한 그들의 행적은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 조정에 참여한 자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항간에서 아무리 그들의 守節을 칭송하더라도 저자는 이를 왜곡과 오류로 받아들이기 뿐이었다.

4. 맺음말

지호 이선의 『승국신서』는 고려말 인물들의 정치적 행보를 節義에 입각하여 서술한 것으로, 상·하권에 총 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상권의 「麗末忠義錄」「不終錄」「麗史列傳」은 기전체 사서의 列傳 형식으로 서술되었고, 하권의 「故實卞誤」는 역사적 사실의 고증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4편에는 모두 史論과 유사한 按說이 종종 달려 있어, 『승국신서』가 비록 기전체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넓게 보면 조선후기 私撰史書의 하나로 규정될 수 있다.

「여말충의록」은 절의를 褒獎할 만한 52명의 종말을 10개 부류로 나누어 약술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김진양의 절의를 정몽주 다음으로 높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고려사』 「姦臣열전」에 있는 조민수를 「여말충의록」에 넣어 일약 충신의 반열로 끌어 올렸다는 점이다. 김진양을 높인 까닭은 정몽주가 그를 시켜 조준·정도전 등을 탄핵한 일을 저자가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고, 조민수를 높인 이유는 살아서도 고려의 신하요 죽어서도 고려의 귀신이니 부끄러움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91) 『승국신서』 하, 「故實卞誤」 〈元天錫〉 辨曰: 此卽所謂齊東野人之語也. 不然 必其子孫成之也. 何者? (중략) 而何故 終太宗之世 不一見於國史耶? 世宗 亦嘗發歎於麗系 忠臣之少 獨稱吉公 不仕之爲高 而不曾一言及於天錫之事, 豈有世宗未曾聞知之理也 亦豈有既嘗聞知而不一言及之理也? (후략).

「여사열전」은 고려에 출사했으면서 조선 개국에 적극 동참한 16명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저자는 이들을 賣國의 계책을 내고 舊君을 시해한 인물로 혹평하기 때문에, 「여말충의록」이 '忠臣열전'이라면, 「여사열전」은 과도하게 말해 '叛臣열전'에 가깝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개국 후 부귀와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조준·김사형의 행적에 모반하다가 주살된 그 후손들을 각각 덧붙였다는 점이다. 이는 不義者들의 끝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된 서술이다. 즉 天道가 명명백백하여 절의자는 천추에 빛나지만, 不義者는 자신 또는 자손에게 끝내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을 보이려는 저자의 기획이 었던 것이다.

「부종록」에는 이색을 비롯하여 고려의 신하였으면서 조선도 섬겨 신하의 절개를 끝마치지 못한 24명을 수록했는데, 대부분 개국 이후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不終'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켰다.

저자 이선에게는 한 왕조에만 출사했느냐 두 왕조를 섬겼느냐가 인물 포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기에, 그는 不終한 인물들의 王氏를 위한 初心은 인정했지만, 개국 이후 그들이 조선 조정에 관여한 행적은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하권의 「고실변오」는 이색·김주·김자수 등 고려말 9인의 守節 일화가 근거 없는 오류이거나 자손들이 지어낸 터무니없는 조작임을 논변한 글이다. 「고실변오」의 辨證 대상이 오직 節義라는 점에서, 이 글의 성격은 상권의 3편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17세기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의리명분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승국신서』는 17세기 조선의 이러한 시대성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승국신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오직 절의뿐인 데는, 忠節의 史蹟을 너무 흠모하는 저자의 개인적 성향도 영향을 끼쳤다.

이선의 스승인 송시열은 〈牧隱先生碑陰記〉를 지어 이색의 절의를 옹호했지만, 저자는 〈書尤齋先生所撰牧隱碑陰記後〉를 지어 스승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부종록」 〈이색〉과 「고실변이」 〈이색〉은 상호 연관되며, 이색에 대한 평가를 재고할 수 있는 유익한 사료다.

이선은 『승국신서』를 지으면서 『고려사』와 실록에 철저히 입각했다. 상권의 3편은 두 正史에 흠어진 기록들을 인물별로 착실히 수합했다는 측면에서 사료적 가치가 없지 않다. 더욱이 「고실변오」에는 여타의 자료들도 인용되었고, 일정정도 논리성이 담보된 저자의 변론 또한 그 자체로 후대인들에게 좋은 문헌 자료가 될 만하다.

『승국신서』는 간혹 고려말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충격적으로 뒤집기에, 후자에게는 우리를 눈뜨게 해주는 開眼處요, 『고려사』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승국신서』는 여말선초 정치사 및 인물사 연구에 유의미한 史料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李 選, 『勝國新書』(上下合本) 2권 1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芝湖集』, 한국문집총간 143.
_____, 『한글 지호집』 1~4,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옮김, 전주이씨 광평
대군파 호운공 종중 발행, 2015.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朝鮮王朝實錄.
『東史綱目』(安鼎福), 『大東野乘』, 『燃藜室記述』.
『陽村集』(權近), 『西厓集』(柳成龍), 『月汀集』(尹根壽), 『宋子大全』(宋時烈),
『順菴集』(安鼎福), 『研經齋全集』(成海應), 『頤齋亂藁』(黃胤錫), 『芸窓集』(朴性陽).

2. 논저

- 姜世求, 『東史綱目研究』, 民族文化社, 1994.
김성애, 『지호집』〈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0.
도현철, 「조선시대의 이색 인식과 연구 과제」, 『한국사연구』 159, 한국사연구회,
2012.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2.
俞英玉, 『東國通鑑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4.2
_____, 「'廢假立眞'에 대한 조선후기 사대부의 비판적 인식」,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李右成·姜萬吉 편, 『韓國의 歷史認識』 下, 創作과批評社, 1976.
정재훈, 「이색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한국사상사학』 30, 한국사상사학회, 2008.

〈Abstract〉

A Study on 『Seungguk Sinseo』 by Jiho Yi Seon in the 17th Century

Yu, Young-Og

『Seungguk Sinseo』 is a literature that evaluates political behaviors which figures of the late Koryo period did, especially in terms of fidelity. It is one of the historic books that were privately compil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Seungguk Sinseo』 comprises 4 pieces, 『Yeomal Chunguuirok』, 『Buljongrok』, 『Yeosa Yeoljeon』 and 『Gosil Byeono』.

『Yeomal Chunguuirok』 briefly describes the later lives of dozens whose fidelity deserves to be praised. 『Yeosa Yeoljeon』 severely slams 16 persons who had been subjects of Koryo dynasty, but took part in the foundation of Joseon dynasty. 『Buljongrok』 describes behaviors of 24 figures who didn't keep loyalty to Koryo to the end, but eventually associated themselves with Joseon. Here, 'Buljong' means that a subject of dynasty fails to maintain his integrity to the last.

Thus, fidelity is only keyword of 『Seungguk Sinseo』, in which the most important standard in determining how much fidelity subjects had is whether they served a single or two different dynasties.

『Gosil Byeono』 clarifies in a discriminative way that anecdotes of 9 figures with fidelity were in fact mistaken or manipulated stories. In negating those stories in detail, 『Gosil Byeono』 is relatively logical partly because 『Seungguk Sinseo』 was made thoroughly based on 『Koryosa』 and true historical records. In this sense, 『Seungguk Sinseo』 helps evaluate figures of the late Koryo period more properly and accurately than 『Koryosa』.

* Key Words: Jiho Yi Seon, 『Seungguk Sinseo』, Privately Compiled Historic Books, the Late Koryo to Early Joseon Period, Fidelity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8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